OM SHIPS International
Newsletter 59

박필훈 장미애 선교사 기도소식

(2022 년 2 월 20 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 - 고린도전서 **3:6-8**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각각 자기의 일하는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아무 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 상을 예비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선교에 동참케 하심을 인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는 이는 복음을 전하는 이고 물주는 이는 양육과 훈련을 하여 성장케 하는 이를 말하겠지만 선교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선교사와 동역자의 관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는 이가 선교 현장의 선교사라고 생각해 보면 물주는 이는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여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과 그 초청에 응할 때 상까지도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제목 1 :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심는 일과 물주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직간접으로 계속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플로렌스 문서 사역의 풍성한 결과

지난 **2021** 년도 플로렌스의 사역과 사업을 통해 **203,000** 권의 성경책과 **935,000** 권의 서적이 판매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Biblestore.com** 사이트와 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해 판매된 서적과 플로렌스와 콜롬비아에서 운영중인 기독서점을 통해 판매된 서적을 모두 합하여 백십만권 이상의 도서가 흩어져 나간 것입니다. 로고스호프의 서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곳 플로렌스의 서적 판매를 통해 오엠선교선 사역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인도, 필리핀, 잠비아,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등 **15** 개 국가에 **15** 개의 서적 컨테이너를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주님의 은혜이자 여러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제목 2 : 올해 2022 년도에도 플로렌스의 사역을 통해 더욱 많은 성경책과 서적들이 판매되고 로고스호프의 서점도 정상 운영되어 선교선 사역이 더욱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봉사자들의 귀한 섬김

지난 **2** 월 **7** 일부터 **10** 일까지 플로리다에 위치한 은퇴자를 위한 타운 빌리지에서 **14**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서적 분류를 비롯한 여러 섬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빌리지는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리울 만큼 생활이 편리하고 은퇴자들을 위한 **4** 천여 종류의 스포츠, 문화, 취미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은 빌리지 안에 있는 교회의 단기선교 팀으로 오신 것인데 이 교회의 표어는 '잘 놀고, 잘 기도하고, 잘 마무리하자'**(Play Well, Pray Well, Finish Well)**라고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지만 더 바쁘고 역동적인 삶과 사역에 임하고 계시는 모습을 뵐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에는 플로렌스의 미션 스쿨인 킹스아카데미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일일 봉사로 섬겨주었습니다.

기도제목 3 : 플로렌스 사역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자 그룹을 보내주셔서 선교선 사역을 위한 기도의 동역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로렌스 단기사역 프로그램

며칠 또는 하루 단위의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더불어 중요한 필요는 두 세달 정도 단기사역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단기사역의 경우 인터넷 세일 등 필요한 업무를 배워 안정적으로 이곳의 문서 사역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여행 규제가 완하되면서 더 많은 단기 사역자들이 이곳 플로렌스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13** 일에는 여수새중앙교회(강정민 담임목사)에서 **2** 명의 자매(황규리, 황규선)가 도착하여 영어공부와 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 월에는 부산사랑의교회(염부섭 담임목사)에서도 두 명의 자매가 이곳으로 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월 평균 두 세명이었던 단기사역자가 현재는 평균 열 명을 유지하며 진행되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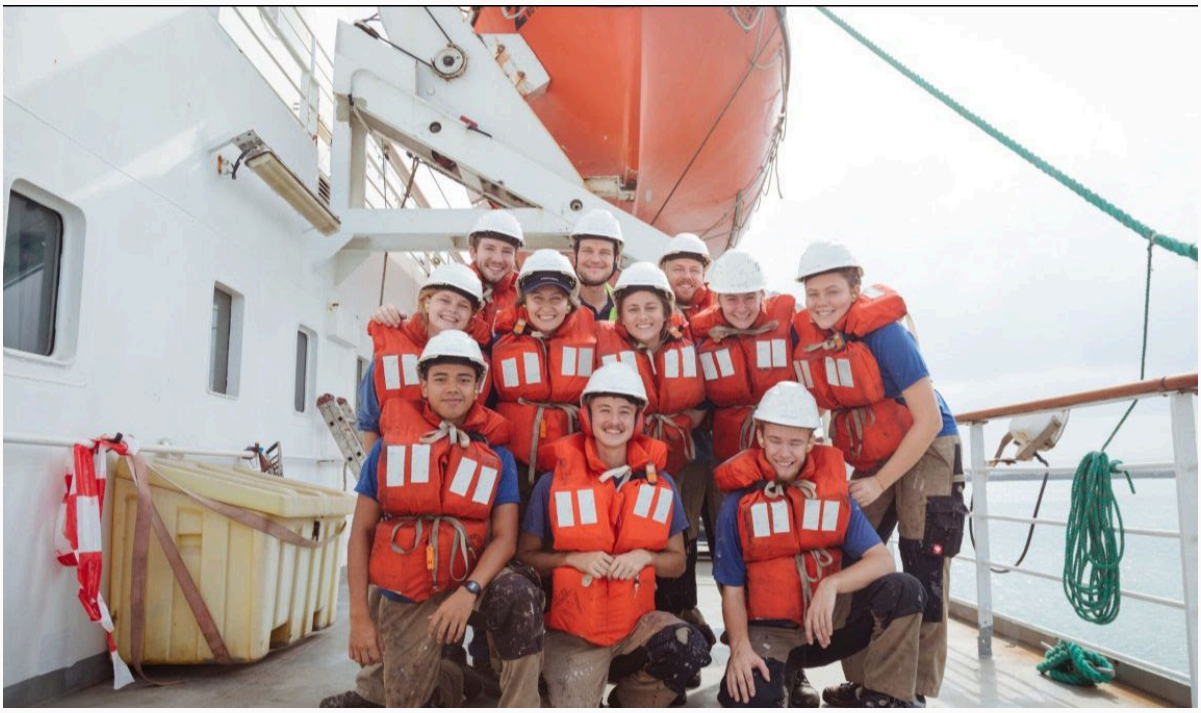


기도제목 4 : 플로렌스 단기사역 프로그램에 한국에서는 물론 다양한 국가의 성도님들이 계속 참여하여 선교선 사역을 위한 섬김과 더불어 선교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호프는 지금

로고스호프는 현재 아프리카 가나의 테마(Tema)에서 정상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임사역자를 위한 해상 안전훈련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 중인데 2 월 22 일부터 신임사역자들이 모든 훈련을 마치고 배치된 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2 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60 여명의 사역자들이 선교선을 떠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떠나는 사역자들은 코로나 시국의 2 년을 선교선에서 보낸 사역자들로 그 어느 그룹보다 힘들었지만 그 만큼 영적으로 선교적으로 성장되어 떠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기도제목 5 : 정들었던 사역자를 떠나보내고 신임 사역자를 맞이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과 지혜를 로고스호프의 모든 선상의 사역자들에게 허락하사 힘찬 사역을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적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의 일상임을 새삼 확인하여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기도제목 6 : 박필훈 장미애 선교사의 미국 비자 연장 과정이 잘 진행되고 은철 지윤이가 새학기를 건강과 열정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제목 7 :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 가정 가정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호프 2021 년 사역회고 영상

미전도종족을 위한 매일 기도 링크

https://joshuaproject.net/pray/unreachedoftheday/today